

“찬불가도 신행의 일부...음악법회 활성화 해야”



데스크 초대석

오느름국악관현악단

김능명 단장

“찬불가 자주 부르세요?”

20년 혹은 30년 전에 다녔다는 불자라 할지라도 이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을 못한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불가는 몇 곡이나 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는 찬불가는 몇 곡이나 되지?’ 생각을 가다듬고 헤아려 봐야 한다. 물론 대부분 다섯 곡을 넘지 못한다.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등을 외운다면 찬불가도 ‘삼귀의’ ‘사홍서원’ ‘찬양합시다’ ‘보현행원승’ ‘청법가’ 등 법회에서 상용하는 몇 곡 외에 애창곡을 꼽기 힘들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찬불가가 불자들의 신행 생활 깊은 곳에 닿아있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법회에서 특정 의식곡 외에는 부를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찬불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또 새로운 찬불가를 만들고 전파하는 조직적 기반도 약하고 찬불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사찰합창단과 일부 음악인들의 노력으로 찬불가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찬불가는 음악을 통해 불보살의 공덕과 가르침을 찬탄하고 교리를 배우고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훌륭한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불가는 여전히 포교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1991년에 창단되어 불교음악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오느름국악관현악단의 김능명 단장도 열악한 찬불가의 무대에서 외롭게 ‘사명감’을 지키고 있다. 지난 20여 년 불교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달궈져 온 그의 지휘봉은 ‘불발에 피는 꽃’ ‘혜초’ 등 국악 교성곡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밥은 깊어라’ 등 찬불 음반, 수심곡의 실내악과 찬불동요 및 가요를 생산했다. 조계사와 진각종 등 종단과 사찰 합창단을 지도하고 직접 지휘하는 등 불교음악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김능명 단장에게 찬불가에 ‘미래’는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찬불가의 토양(土壤)은 어떻습니까?

불교의 경전을 하나의 문화이라고 말하기도 하듯, 음악적 측면에도 운율을 갖춘 계승들을 찬불가의 연원(淵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천상인들의 주악과 여러 보살들의 찬탄을 빼뜨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드는 대중의 환희심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찬불가의 역사는 부처님 재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 때 진금곡사가 당나라에서

법패를 들여와 지금의 쌍계사에서 전승시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향가라는 형식의 문화도 충분히 찬불가의 기능을 했었지만 중분한 고증은 되지 않습니다. 불교가 흥성했던 고려시대를 거쳐 역불의 시대라고 하는 조선조에서도 사찰의 재(齋) 의식은 전승되어 왔습니다. 진금곡사 이후로 전승되어 온 법패 음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국 불교에 있어 찬불가의 토양은 매우 비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현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찬불가를 전통불교음악과 창작불교음악으로 나눌 때, 창작 찬불가의 출발은 백용성 스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불교 선봉일지를 주창했던 용성 스님은 1927년부터 풍금을 치면서 찬불가를 불렀고 보급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기존의 악곡에 가사만 바꿔 부르는 정도였지만, 불교음악이 의례와 의식에서 벗어나 불자들의 생활로 접목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개념의 찬불가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확대되어 운문 스님 등 스님들과 최영철 반영구 선생님 등 재가자들의 창작 찬불가들이 법회에서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찬불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지요?

불교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찬불가를 양산하고 그것을 전국의 불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음악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만한 시상제도라든가 공연지원의 틀도 거의 없습니다. 사찰의 합창단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지휘자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메말랐다고 해서 씨뿌리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겨울 조계사에서 음악법회를 몇 차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스님과 불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찬불가는 유희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법을 공양하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신행의 일부라는 생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법회에서 반드시 찬불가를 부르고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스님들이 마음을 바꿔야 할 부분이라면 불자들은 찬불가 부르기 모임도 만들고 집에서 즐겁게 찬불가를 불러야 합니다. 사찰 합창단은 일반 불자들보다 전문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새로운 레퍼토리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늘 새로운 곡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행현장에서 찬불가가 활성화된다면 전문 음악인들의 창작의욕도 고취될 것이고 전문 악단의 활동도 힘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음악인들의 창작과 연주에 신행현장을 부양하지 못했는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행현장에서 불교음악이 ‘인기’ 있어야 창작의 수준이 올라가고 공연의 기회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거니와 사찰 합창단이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발표회를 자주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불자들은 불교음악 공연이 열리면 ‘공짜표’가 아니면 잘 안가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풍토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뛰는 입장에서 말하기 좀 어색하지만, 전문음악인

양질의 찬불가 양산·전파할 수 있는 인프라 ‘열악’

불교음악 공연 활성화·전문음악인 처우 개선 시급

했었습니다. 찬불가의 역사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는 방식이었는데 참가한 불자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찬불가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심이 솟아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찬불가의 확산 인프라만 건장해 진다면 신행 패턴을 현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찬불가란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행과 포교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자들이 편하고 즐겁게 부를 수 있어야겠지요.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완성도 높은 실내악이나 교성곡 등 대형음악도 필요합니다. 찬불가도 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골고루 창작되고 공연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합니다.

—찬불가간신행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데...

조계사의 경우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에 합창단이 있고 지휘자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합창단과 함께 법회에서 시간을 내어 찬불가를 지도하고 생활 속에서 찬불가 부르기를 독려한다면 불자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불자의 삶이 즐거워지고 밝아지면 그것 이상의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회에서 의식곡 이외의 찬불가를 배우고 찬불가 부르기를 생활화한다면 신행과 포교와 불자간의 화합에 그만큼 ‘영약(靈藥)’도 없지 않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신나는 일이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불자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코드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음악인들 역시 정당한 예우를 할 때 좋은 작품과 정열적인 지도가 뒤따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불교음악을 이끄는 두 축이 ‘한국불교음악협회’와 ‘삼보불교음악원’인데 두 단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각자의 길을 개척하고 뛰느라 함께 손을 잡고 연구하고 공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한결 같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의 지도자들과 지휘자 석악가 등 주요 일꾼들이 모였고 한 자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공연장에서 두 단체가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신자 찬불가도 다수 발표될 예정인 이 공연이 한국불교음악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한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음악법회’를 하는 사찰이 늘어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음악법회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작 음반(작곡집)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대장군’을 부른 박예리의 앨범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대 김민중 교수와 무지침 ‘원호’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최대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글=임연태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이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제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컨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 주옥수목내용 ■
- ▶ 금방 이야기
- ▶ 꿈이 많을 줄도 모르
- ▶ 꿈이 미쳐가고 있어
- ▶ 의외로 이야기
- ▶ 바꿔 놓고 생각해
- ▶ 실수의 흔적
- ▶ 처제와의 불륜
- ▶ 유쾌한 무언가?
- ▶ 입시 이야기
- ▶ 생활수목이야기
- ▶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 ▶ 세 번 결혼한 김사님
- ▶ 입퇴와 세스의 비밀
- ▶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 ▶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 ▶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 ▶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 ▶ 늦게 내 사랑이야기
- ▶ 넘치는 정력을 주재할 수 없어요
- ▶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 ▶ 운명을 바꾸는 법

- 백속 부록 ■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신·애·음·비·법
- ▶ 들은 보는 귀환
- ▶ 들은 보는 귀환
- ▶ 시(時)로 보는 귀환
- ▶ 불자로 손(掌성) 보는 법
- ▶ 심재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경기도 이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관주광역시 북구 창곡(명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